



# 베트남 2023년 평가 및 2024년 전망

2023. 12. 27

한국무역협회  
호치민지부

# I. 2023년 평가

## 1. 총괄

- 2023년 베트남 경제는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기존 베트남 정부가 목표로 했던 6.5%의 경제성장은 달성이 어려워 보임
- 그러나 공급망 다변화의 혜택에 따른 FDI의 증가와 관광객 증가 등 내수 경기의 선전으로 5%의 성장은 달성이 가능해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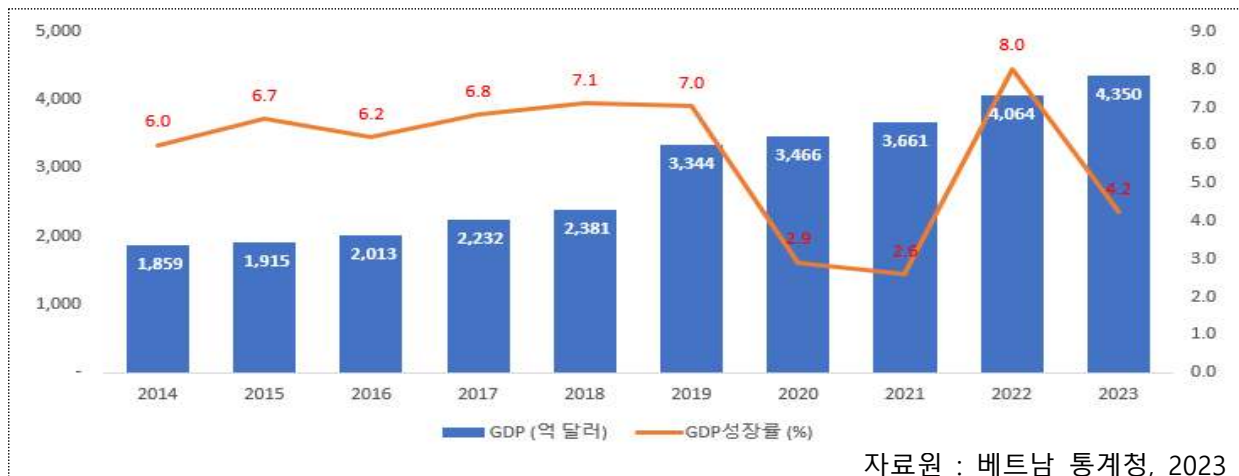
### 2023년 베트남 GDP 5%대 증가 예상

무역 : 감소	FDI : 증가	내수 : 견조
수출 · 입 모두 감소	전년 FDI 금액 초과	관광객 ↑ 부동산 ↓

## 2. GDP

- 베트남은 최근 10년간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항상 6%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어 왔음
- 그러나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23.3분기까지 GDP 성장률은 4.2%를 기록, 금년 베트남 정부가 목표로 했던 6.5% 성장률은 달성이 어려워 보이며, 5% 전후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
- 긍정적인 부분은 2023.1분기 3.3% → 2분기 4.1% → 3분기 5.3%로 성장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

<최근 10년 간 베트남 GDP 및 GDP 성장률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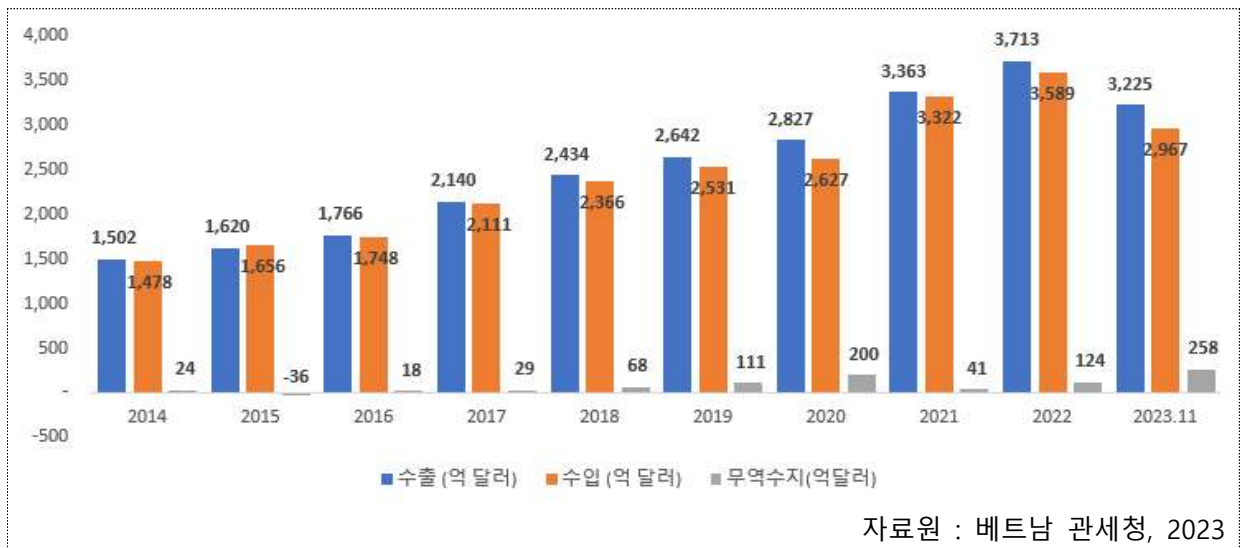


※ 2023년 GDP 4,350억달러는 베트남 정부의 추정치이며, GDP 성장률 4.2%는 2023.3분기까지의 통계임

### 3. 무역

- 베트남의 2023.11월까지 교역액은 6,19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%의 감소를 기록 중
  - 수출은 3,225억 달러로 5.9%, 수입은 2,967억 달러로 10.7%가 감소하였고, 무역수지는 258억 달러 흑자를 기록
  -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주문감소로 수출입 모두 감소를 기록, 다만 하반기 수출이 점차 회복되면서 수출 감소 폭이 줄어드는 중

<최근 10년 간 베트남 수출입>



- 베트남은 최근 10년간 수출입 증감률이 모두 플러스를 기록하였으나, 올해 처음으로 수출입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

<최근 10년 간 베트남 수출입 증감률>



- 베트남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으로 13.2%가 감소,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8.4%가 감소
- 대부분의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중국과 인도 수출은 증가, 특히 중국으로의 농산물 수출이 전년 대비 2.6배 증가

<국가별 수출입(2023.1~11)>

(단위 : 억달러, %)

No	국가명	수출	
		금액	증감률
1	미국	878.8	△13.2
2	중국	554.7	5.5
3	한국	215.0	△4.1
4	일본	213.1	△3.6
5	네덜란드	92.8	△3.1
6	홍콩	85.1	△15.5
7	인도	78.0	6.7
8	독일	68.3	△18.0
9	태국	66.1	△2.1
10	영국	58.0	3.1

No	국가명	수입	
		금액	증감률
1	중국	1,003.0	△8.4
2	한국	477.0	△17.3
3	일본	197.6	△8.1
4	대만	169.3	△19.8
5	미국	125.6	△6.7
6	태국	107.8	△16.0
7	인도네시아	79.5	△8.1
8	호주	78.0	△17.5
9	말레이시아	71.2	△15.5
10	인도	54.1	△14.9

자료원 : 베트남 관세청, 2023

- 최대 수출 및 수입 품목은 컴퓨터 및 전자부품이며, 수출 1.8%, 수입 4.9% 증가를 기록하였으나, 그 외 대부분의 품목은 감소

<품목별 수출입(2023.1~11)>

(단위 : 억달러, %)

No	품목명	수출	
		금액	증감률
1	컴퓨터 및 전자부품	516.4	1.8
2	휴대전화 및 부품	484.9	△11.7
3	기계, 장비, 공구	392.8	△6.5
4	섬유 및 의류	304.3	△12.3
5	각종 신발	183.7	△16.6
6	운송차량 및 부품	126.2	16.1
7	목재 및 목재제품	121.2	△17.5
8	수산물	82.3	△19.1
9	각종 철강	75.8	2.4
10	카메라, 캠코더 및 부품	67.9	15.6

No	품목명	수입	
		금액	증감률
1	컴퓨터 및 전자부품	797.9	4.9
2	기계, 장비, 공구	376.8	△9.4
3	각종 식물	118.7	△13.2
4	각종 철강	95.5	△14.0
5	플라스틱 원료	89.5	△23.3
6	휴대전화 및 부품	80.1	△59.3
7	각종 석유	78.5	△3.7
8	기타 일반 금속	69.4	△19.2
9	화학제품	69.3	△14.3
10	플라스틱 제품	68.6	△8.7

자료원 : 베트남 관세청, 2023

## 4. FDI

- 2023.11월까지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288.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.8%가 증가, 11월에 이미 전년도 FDI 금액을 초과  
- 2023 상반기까지 4.3% 감소하였으나 이후 플러스로 전환
- 베트남의 2023년 FDI 금액은 약 31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

<최근 10년 간 베트남 FDI 및 증감률>



- 2023년 베트남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는 싱가포르로 51.5억 달러를 투자, 중국은 전년 대비 80% 증가한 39.6억 달러를 투자  
-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지역은 껀닌, 하이퐁 등 대부분이 북쪽 지역

<국가별/지역별 FDI(2023.1~11)>

(단위 : 억달러, %)

No	국가명	금액	증감률
1	싱가포르	51.5	△10.9
2	홍콩	43.3	127.9
3	한국	41.7	1.2
4	중국	39.6	80.0
5	일본	31.0	△32.6

No	지역명	금액	증감률
1	껀닌	31.1	42.3
2	호치민시	30.8	△12.9
3	하이퐁	28.0	30.0
4	박장	27.0	124.8
5	하노이	26.0	68.8

자료원 : 베트남 기획투자부

- 산업별로는 가공제조업의 투자가 40.2% 증가, 전체 비중 72.7%를 차지, 특히 올해는 금융 및 은행업에 대한 투자가 급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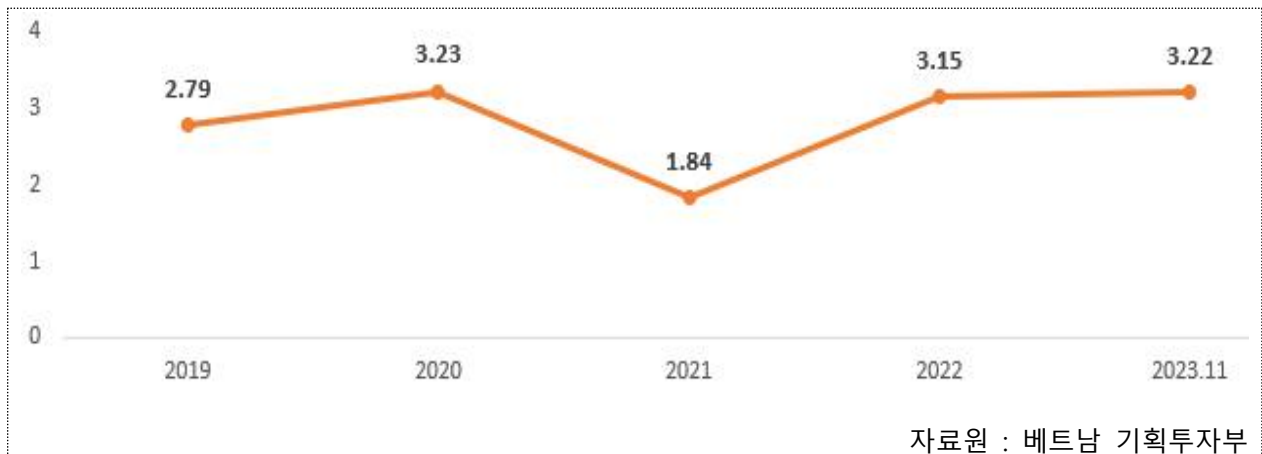
<산업별 FDI(2023.1~11)>

No	산업명	금액(억 달러)	증감률(%)	비중(%)
1	가공제조업	209.0	40.2	72.7
2	부동산업	28.7	△31.4	10.0
3	금융 및 은행업	15.4	5,823.0	5.3
4	도매 및 소매업	10.4	12.9	3.6
5	과학 기술 산업	8.4	△18.4	2.9

## 5. 내수

- (물가상승률) 2023.11월까지 베트남의 물가상승률은 3.22%로 안정세를 지속 중, 올해 베트남 정부 목표치인 4~4.5%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
-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운송비, 교육비, 식품, 전기요금 등

<물가상승률(2019~2023.11)>



- (상품·서비스매출) 2023.11월까지 베트남의 상품·서비스 매출은 2,32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.6% 증가, 이 중 상품 소매 매출액은 1,816억 달러로 전체 비중의 70%를 차지했고, 전년 동기 대비 8.6% 증가
- 숙박 및 음식 서비스 매출액은 253억 달러로 전체 비중의 10.9%를 차지했고, 전년 동기 대비 15.3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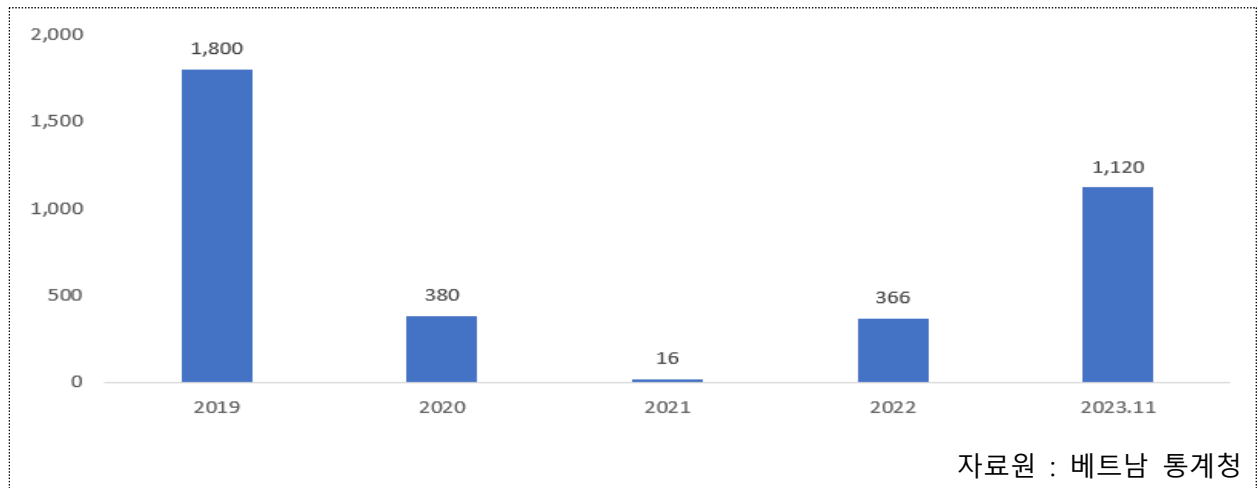
<상품·서비스 매출 증감률(2019~2023.11)>



- (해외관광객) 2023.11월까지 베트남의 해외관광객 수는 1,120만명으로 올해 정부 목표치인 800만명을 초과, 약 1,200만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
  - 국가별로는 한국 320만명, 중국 150만명, 대만 75만명, 미국 65만명 순
  - 11월까지 관광산업 매출은 259억 달러로 지난해 보다 26.9%가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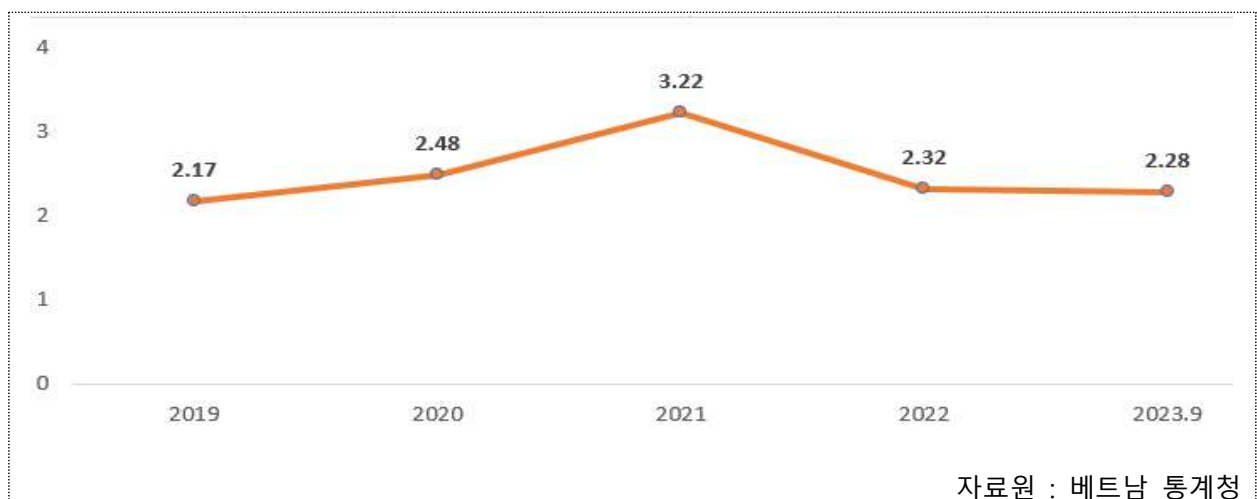
<해외 관광객 수(2019~2023.11)>

(단위 : 만명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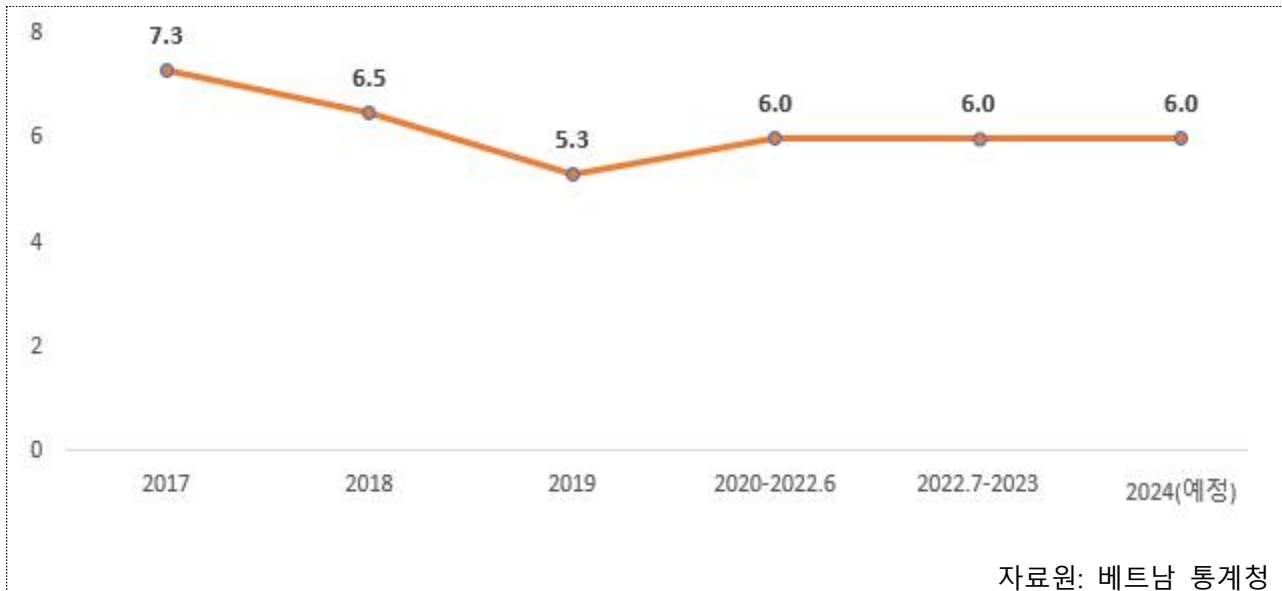
- (실업률) 2023.9월까지 베트남의 실업률은 2.28%로 정부가 목표로 했던 도시 실업률 4% 이하의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
  - 하지만 2023.9월까지 전체 실업자의 40.0%인 43만4,300명에 달하는 청년 근로자(15~24세)의 실업률은 7.6%로 전체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음

<실업률(2019~2023.9)>



- (최저임금) 베트남은 2022.7월 최저임금을 6% 인상하였으며, 2023.12.20 열린 최저임금 인상 2차 회의에서 2024년에 최저임금을 6% 인상하기로 결정

### 2017년-2023년 베트남의 최저임금 상승률



### < 2017년-2023년 베트남의 최저 월급, 단위 : VND >

기간	지역 구분			
	지역 I	지역 II	지역 III	지역 IV
2017	3,750,000	3,320,000	2,900,000	2,580,000
2018	3,980,000	3,530,000	3,090,000	2,760,000
2019	4,180,000	3,710,000	3,250,000	2,920,000
2020~2022.7	4,420,000	3,920,000	3,430,000	3,070,000
2022.7~2023	4,680,000	4,160,000	3,640,000	3,250,000
2024(예정)	4,960,000	4,410,000	3,860,000	3,450,000

자료원 : 베트남 정부

- \* 지역 I : 하노이, 호치민, 투득, 하롱, 하이퐁, 다낭, 붕따우 등
- \* 지역 II : 박닌 하이즈, 타이응우옌 후에, 호이안, 달랏 등 지역I 內 일부 현
- \* 지역 III : 박장성, 광닌성, 라오까이성, 탄호아성 등 각 성 내 일부 현
- \* 지역 IV : 기타 교외 지역

## 6. 2023년 주요 이슈

### ① 베트남 북부에 발생한 대규모 전력난

- 2023.5~6월까지 베트남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여 공장 가동 및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 발생
  - 정전의 주요 원인은 강수량 부족으로 수력발전소의 저수량 급감, 화력발전을 위한 석탄 수급 부족 등
- World Bank에 따르면 2023년 5~6월 북부지역 전력난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14억 달러(GDP의 0.3%)에 달할 것으로 추산
-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라오스와 중국으로부터의 전력 수입과 전력 인프라 개선을 위한 공공투자를 확대

### ②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문과 외교 관계 격상

- 2023.9월 미국의 조 바이든(Joe Biden)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베트남 응웬푸쑹(Nguyen Phu Trong) 당서기를 만나 양국 관계를 “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\*”로 격상
  - \* 현재 중국(2008), 러시아(2012), 인도(2016), 한국(2022), 미국(2023), 일본(2023) 등 6개국
- 이번 관계 격상은 기존 “포괄적 동반자 관계” 수립 10주년을 기념해 성사됐으며, 기존 단계에서 2단계 격상
-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은 베트남의 디지털 인프라 개발, 공정에너지 전환, 스마트농업, 반도체 등 첨단기술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 및 협력 추진을 발표

### ③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방문과 “미래 운명공동체” 구축 합의

- 2023.12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베트남 응웬푸쑹 당서기와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“미래 운명공동체 구축”에 합의
- 양국은 정치, 외교, 안보 등 36개 부분에 걸쳐 협약을 체결하였고, 북부 국경지대의 철도와 도로 개발 관련 인프라 투자협력도 포함

#### ④ 지속되는 부동산 시장 침체

- 2022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베트남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면서 베트남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
  - 2022년 부동산 산업의 GDP 기여율은 3.6%였으나, 2023.1분기 3.5%, 2분기 3.2%로 지속 하락
  - 부동산에 대한 FDI도 2023.11월까지 31.4%가 감소
-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신규 공급 부족으로 산업단지와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
  - 2023년 1분기 남부지역 산업단지 입주율이 임대토지 입주율은 81%로 8%포인트, 기성 공장 입주율은 78%로 11%포인트 감소
  - 호치민시를 비롯한 남부지역에 2023.11월 기간 신규 공급된 아파트는 9,530세대로 65%, 분양세대수는 7,000여세대로 67% 감소

#### ⑤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 크게 증가

-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동남아시아에서 3번째\*로 큰 규모로 2023년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출은 205억 달러로 전년 164억 달러에서 25% 증가할 것으로 예상

\* 1위 인도네시아, 2위 태국, 3위 베트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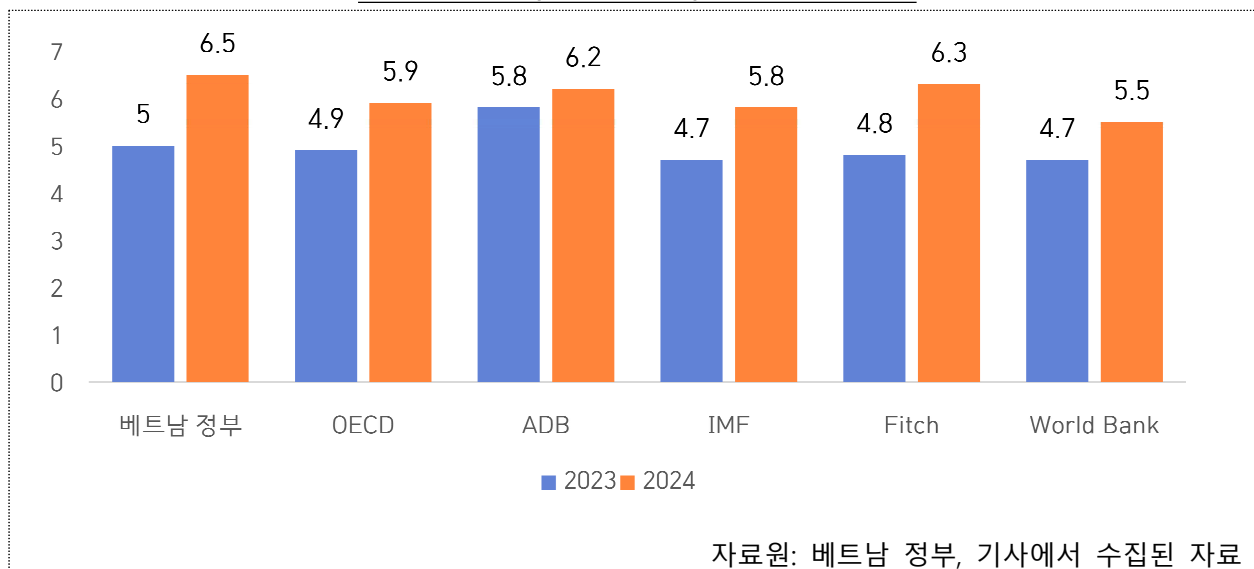
-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매출은 매년 20~25%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, 2025년에는 32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
- 또한,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도 연간 9%씩 증가하여 2027년에는 5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
-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격하게 증하고 있는 이유는 베트남 인구의 74%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, 이 중 약 5,900~6,200만명이 온라인 쇼핑을 이용 중, 1인당 쇼핑액은 약 300~320달러

## Ⅱ. 2024년 전망

### 1. 총괄

- 2024년 베트남 경제는 2023년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회복세가 상반기까지 지속되고, 하반기부터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
- 베트남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6~6.5%로 정하였으며, 타 기관들도 2024년 베트남의 경제는 2023년보다 좋아질 것으로 전망

<2023년 베트남 경제성장률 전망>



### 2. 무역

- 2024년 베트남의 무역은 글로벌 경기침체가 서서히 회복됨에 따라 베트남의 주요 시장인 미국, 중국, EU 등의 소비 수요 증가에 따라 2023년 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2023년 하반기부터 베트남 무역은 점점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
  - \* 누적수출 증감률 : 7월  $\Delta 10.6\%$  → 8월  $\Delta 10.0\%$  → 9월  $\Delta 8.2\%$  → 10월  $\Delta 7.1\%$  → 11월  $\Delta 5.9\%$
  - \* 누적수입 증감률 : 7월  $\Delta 17.1\%$  → 8월  $\Delta 16.2\%$  → 9월  $\Delta 13.8\%$  → 10월  $\Delta 12.3\%$  → 11월  $\Delta 10.7\%$
- WTO는 2024년 세계무역이 3.3% 증가할 것으로 예상(2023년 0.8%)
- 베트남 정부도 무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FTA 체결 추진과 남미, 중동 등 수출시장 다각화 등 무역 확대를 추진 예정

### 3. FDI

- 2024년 베트남 FDI는 지속되고 있는 미·중 갈등과 공급망 다변화의 혜택으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
  - IMF는 2024년 베트남의 FDI가 2023년보다 5.1%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2023년 외교 관계가 격상된 미국, 일본으로부터의 첨단기술, 재생에너지와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
  - 2023.12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방문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투자와 공장 이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

### 4. 내수

- (물가상승률) 2024년 베트남 정부는 물가상승률 목표를 4%~4.5%로 설정
  - 2024년 베트남 물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은 ①전기요금 인상 ②최저임금 인상(6%) ③의료, 교육 등 공공 서비스 가격 인상 등
  -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경우 철강 및 건축자재 가격 인상과 쌀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(WB 2024년 6% 증가 전망)도 물가에 영향
- (실업률) 2024년 베트남 정부는 도시 실업률 목표를 4% 미만으로 설정
- (관광객) 베트남 관광협회는 2024년 해외 관광객이 코로나 이전 수준인 1,800만명~2,000만명 될 것으로 전망
  - 2023.8월 완화된 새 비자 정책의 지속과 저렴한 물가, 안전한 치안 등 베트남만의 여행 매력으로 관광객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
- (공공투자) 2024년 베트남 정부는 공공투자 예산을 2023년 대비 8% 증가한 769조 2,650억동으로 설정
  - 이러한 예산은 남북 고속도로 건설 등 인프라 개발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추진 예정
  - 또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 등 디지털 전환 및 첨단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우선적으로 추진 예정

### 〈베트남의 2024년 사회경제적 발전 목표〉

지표	목표
경제성장률	6~6.5%
1인당 GDP	4700~4730달러
GDP대비 가공·제조업비율	24.1~24.2%
소비자물가지수(CPI)	4~4.5%
노동생산성증가율	4.8~5.3%
총노동중 농업노동비중	26.5%
도시 실업률	4% 미만
빈곤감소율	1% 초과
인구 1만명당 의사수	13.5명
인구 1만명당 병상수	32.5병상
고숙련노동자비율	69%(학위·자격증비율 28~28.5%)
건강보험 가입율	94.1%
신(新)농촌기준 충족 마을비율	80%
도시 고형폐기물 수거·처리비율	95%
환경기준 충족 폐수처리시스템 갖춘 산업·수출가공단지 비율	92%

자료원 : 베트남 정부